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대림 교리

양종규 사무엘_본지 기자

‘기다림’이라는 말에는 간절함과 설렘이 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그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 애쓴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마태 25, 1-13)’ 처럼 말이다.
대림 시기,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기다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림 시기란?

‘대림(待: 기다릴 대, 臨: 임할 림)’이란 라틴어 Adventus(도착, 도래)의 번역어로, ‘이 세상 끝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뜻하는 말이다.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을 말하며,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재림하실 구세주를 기다린다**. 대림 제1주일, 곧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첫 일요일은 전례력(교회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대림 시기의 유래

교회 안에서 대림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4세기 말경에** 스페인과 갈리아(현재의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북부, 네델란드 남부, 독일의 라인강 유역) 지방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6주간 참회의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참회의 기간은 전례와는 상관없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금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대림 시기가 전례 안에서 거행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이후** 로마와 라벤나(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고대 도시)에서였다. 로마에서도 초기에는 대림 시기가 6주간이었으나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이 4주간으로 **고정**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대림 시기가 한 해의 끝 무렵에 거행되었고, 그 의미도 때가 차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의 찬 시기**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차츰 다른 지역의 영향으로 금욕적인 성격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

대림 시기의 의미

대림 시기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약 2천 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며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준비**다. 구원의 시작은 마지막 날을 잘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이 기다림은 온 세상의 일치와 완성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하다.



셋째,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매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속과 속죄를 통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성탄)와 미래(재림)와, 현재(우리 가운데 오심)를 기억하고 목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다.** 대림 시기의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삶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림의 참의미라 할 수 있겠다.

대림 시기의 전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면 대림 시기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때이다. 이 시기 교회의 전례도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준다.

1970년에 개정된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이 기간의 전례에 대해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들 사이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요, 동시에 그와 같은 기억을 통하여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영혼이 인도되는 시기다.”라고 설명한다. 이 지침에 따라 현행 로마 전례의 대림 시기는 종말을 강조하면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대림 제1주일~12월 16일)과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을 강조하는 기간(12월 17-24일)**으로 구별된다.

대림 시기의 각 주일의 복음도 이와 같은 전례의 성격을 반영한다.

대림 제1주일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대비할 것을 일깨워 준다(가해 :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 24, 42). 나해 : “깨어 있어라” (마르 13, 37). 다해 :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 21, 36).).

대림 제2주일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중심으로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가해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 2). 나·다해 :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르 1, 4; 루카 3, 3).).

대림 제3주일은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한다(가해 : “눈먼 이들이 보고 (……)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마태 11, 5). 다해 :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루카 3, 16).).



대림 제4주일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힌다(가해 :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 1, 21). 나해 :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루카 1, 35). 다해 :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 43).).

<대림 시기 주일 복음>

	1주	2주	3주	4주
가해	마태 24, 37-44	마태 3, 1-12	마태 11, 2-11	마태 1, 18-24
나해	마르 13, 33-37	마르 1, 1-8	요한 1, 6-8, 19-28	루카 1, 26-38
다해	루카 21, 25-28, 34-36	루카 3, 1-6	루카 3, 10-18	루카 1, 39-45

한편 대림 시기에는 제대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미사 중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순 시기와는 달리 알레루야는 바친다. 사순 시기는 인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기 위한 회개와 보속이 강조되지만, **대림 시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림 시기의 회개는 곧 오실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림 시기에는 단식과 금육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단독 연주는 피하도록 한다.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으로 **보라색** 제의를 입는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림초**를 켜는데 우리에게 구세주가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알리기 위해 매 주 하나씩 숫자를 늘려 가며 촛불을 켜다.



〈대림 시기 전례의 특징〉

	1주	2주	3주	4주
제의색	보라색	보라색	장미색*(보라색)	흰색
대림초	1개 점화 (보라색)	2개 점화 (보라색, 연보라색)	3개 점화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4개 점화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그밖의 사항	대영광송 생략(알렐루아는 생략하지 않음)			

※ 전례색에서 장미색은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낸다. 사제는 대림 제3주일과 사순 제4주일에 이 색깔의 제의를 입는다.

대림 시기 풍습-대림환

대림환을 만드는 관습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상록수 잎을 따서 둥그런 환을 만들고 그 위에 4개의 초를 엮는데, 상록수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하고 둥그런 형태는 영원을 상징한다.



촛불은 대림절의 중요한 표징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4개의 초는 대림 4주간을 뜻하며, 점점 압박해 오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신자들이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대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추가해서 켜다.

대림환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의 자세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또한 많이 무디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도 그저 일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로 여겨진다는 느낌이다. 더욱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준비로 사회 분위기가 한껏 들뜨면서 많은 신자들이 소비와 향락의 문화에 젖어 들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림 시기는 기도와 극기와 회개로써 주님의 재림을 특별히 깨어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다만 이때의 극기와 회개는 기쁨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대림 시기 동안 신자들은 기쁨으로 나의 지난날 반성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전례를 통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